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전공

임 수 빈

2016년 8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성 봉

임 수 빈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임수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임 수 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제주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 자아분화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제주도 대학생들이 자아분화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 4개의 대학에 대학생 350명을 비례유층표집하여 2015년 10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의 측정 도구는 가족건강성을 위해서 유영주,이인수,김순기,최희진(2013)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총22문항, 5점 Likert)를, 자아분화 측정은 서루비(2013) 대학생용 자기분화 척도(총36문항, 5점 Likert)를, 그리고 결혼관은 정윤경,김경희,

배진아, 김찬아(1997) 결혼관 척도(총30문항, 5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에 의해서 빈도 분석, 상관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가족건강성은 결혼관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분화는 결혼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자아분화가 부분 매개하여 긍정적인 결혼관을 높이는 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 요인 중 ‘자기주장’, ‘정서적 거리두기’는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자아분화가 부분 매개하여 긍정적인 결혼관을 높이는 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증진을 통해 긍정적인 결혼관을 높이는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하는 실제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가족건강성	8
2. 자아분화	15
3. 결혼관	23
4.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관계	27
5. 가설 및 연구모형	31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33
2. 연구도구	35
3. 자료처리 및 분석	37
IV. 연구결과 및 해석	38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38
2.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상관관계	40
3.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42
V. 논의 및 결론	49
참고문헌	57

Abstract	68
부록목차	71

<표 목 차>

표 II-1.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의	8
표 II-2.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요소	13
표 II-3. 전통적 결혼과 현대적 결혼	25
표 III-1.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표 III-2. 제주도 4개 대학교 모집단과 표본집단	34
표 III-3.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신뢰도 검증	35
표 III-4. 자아분화 하위요인 신뢰도 검증	36
표 IV-1.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하위영역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38
표 IV-2.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 상관관계	41
표 IV-3.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42
표 IV-4.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44
표 IV-5.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46
표 IV-6.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타인정서몰입’의 매개효과	46
표 IV-7.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의 매개효과	47

<그림 목 차>

그림 II-1. 가족건강성의 구성요소	11
그림 II-2. 매개효과 검증 모형 : 자아분화 전체	32
그림 II-3. 매개효과 검증 모형 :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	32
그림 II-4. 매개효과 검증 모형 :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	32
그림 IV-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43
그림 IV-2.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 의 매개효과	45
그림 IV-3.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 의 매개효과	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경제적·심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여 새로운 가족생활의 설계를 하는 결정적 시기이다(양선영, 2011; 김상옥, 2009; 정혜정, 2008; 김성경, 2003; 권인숙, 2003; 김성경, 2002). 또한 중고등시절에는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고 관리가 되었지만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성인으로서 사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시기이다(문민경, 2013).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보다 구체적인 미래의 설계를 준비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심지연, 2013; 양선영, 2011).

그러나 장기불황으로 인해 취업난과 청년실업의 증가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하고,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소요시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길어진 청소년 시기의 적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상옥, 2009). 취업난 속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를 넘어 내집마련, 대인관계를 포함한 오포세대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고, 이젠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를 향해 'N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한금윤, 2015). 결혼이 필수적이라는 결혼관이 약화되고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신수진, 황은희, 김건희, 2010; 송재희, 1998). 결혼이 점차 선택사항이 되어감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결혼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장진경, 2005).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결혼보다 자아실현과 직업에 우선시하며 결혼이 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든 현실적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선택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다(김성준, 2015; 이선교, 2014; 이성희, 2008; 정미라, 장영희, 2007). 이제 결혼은 더 이상 당위적이거나 사회적 영역이 아닌 개인

적 선택으로 변화하였고 이로써 미혼남녀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혼의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원아름, 2015; 김지유, 조희선, 2014; 이세영, 홍달아기, 2014; 양선영, 2011; 김상희, 1999; 성한기, 1997).

통계청 1990~2014 시도별 평균초혼연령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며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통계청, 2014). 여성 초혼 연령의 증가는 원인 중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교육수준의 증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있는 개인주의적 및 전통적 가치관의 와해, 가치관 전환 등을 들 수 있다(도미향, 2011; 조운정, 2007). 그로인해 결혼의 준비시기인 청년기를 특별한 준비 없이 보냄으로 건강한 결혼관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결혼이나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런 과정이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인적 차원의 선택의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은수, 2007; 진경복, 2005).

2014년도 통계청 ‘결혼에 대한 견해’ 고졸(20~29세) 대상에서 조사결과를 따르면, 전국에서는 ‘반드시 해야한다’ 12.7%, ‘하는 것이 좋다’ 41.7%,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1.4%,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8%, ‘하지 말아야 한다’ 0.4%, ‘잘 모르겠다’ 2.0%로 응답하였다. 제주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12.2%, ‘하는 것이 좋다’ 45%,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36.1%,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6%, ‘하지 말아야 한다’ 1.1%, ‘잘 모르겠다’ 2.9%로 응답하였다(통계청, 2014). 2015년 결혼에 대한 견해 조사결과, 2012년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가 62.7%였으나, 2014년에는 56.8%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국사회지표, 2015).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상당수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현실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나 화려한 장면들만 나와서 연애나 결혼을 근사한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때로는 스타일을 구겨가면서 서로의 진실에 근접해가야 하는 치열한 직업이다(박미령, 2013). 다가올 미래에 한 가정을 이뤄야 할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가치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이소영, 2011).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는 결혼이다. 결혼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유영주, 1984).

Erikson은 대학생의 발달 단계상 친밀감 대 고립감 시기에서 결혼을 통해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했다(김현,홍영선, 2013; 정옥분, 2004; 한미선, 1987). Levinson은 성년기의 전환기(17~22세)는 아동기·청년기를 끝내고 성년기로 진입하고 가능성 탐색과 시험 삼아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이며, 성년기로의 진입(22~28세)은 결혼, 가족, 스승, 꿈 등을 포함하는 첫 번째 주요 인생구조를 설계하며 꿈을 시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정옥분, 2013).

결혼은 가족의 출발점이 된다. 20대 중요 관심사항이 바로 직업과 결혼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결혼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건강한 결혼이 곧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건전한 결혼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건영, 2009; 권효임,배운정,조민언, 1997).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은 부부는 2010년 2006건, 2011년 1986건, 2012년 1939건, 2013년 2148건, 2014년 204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6쌍이 법원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심각성이 더 여실히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의 이혼율 연구(2000~2010)’ 결과에 따르면 제주는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이 3.36건으로, 인천(3.25건)을 앞질러 전국 1위로 나타났다(제주도민일보, 2015. 5. 18.).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선택의 다양성 때문이다(양명숙, 1996). 1970-80년대의 젊은이들은 한 사람만으로 일생을 살아온 부모 세대의 헌신을 배우지 못했다. 선택의 다양성이 헌신의 정도를 낮추어 주었기 때문이다(임성선, 2009). 또한 제주는 2015년 제주지역 성폭력 발생 건수가 437건으로 전년도 361건에 비해 7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 2014년 299건에서 2015년에는 800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경찰청에 가정폭력전담반이 생기면서 가정폭력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의소리, 2016. 3. 3). 본 연구자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결혼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을 알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시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 기대가 높게 나왔고,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박혜림, 2012; 양선영, 2011). 또한 김건영(2009)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결혼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가족기능의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대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느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났다.(최현민, 2009; 송정아, 2002; 이지은, 1996)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 및 가족기능은 대학생의 결혼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모양육태도는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어서 최초의 교육자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여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교육자가 되므로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방법으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방법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신소정, 2014; 신미숙, 2010). 부모-자녀의 관계는 한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부모양육태도로 건강하지 못한 결혼관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가 가족구성원들의 대한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등 다방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해결점이 보여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보고자 한다. 자아분화란 사고와 정서를 개인이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및 정서적 성숙과 원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개인내적 측면에서 감성과 이성이 분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기준하는 것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부모 및 타인과의 융합에서 벗어난 자신의 자주성을 얼마나 확립해 나가는가를 말하는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누어진다. 미분화는 사고와 감정, 자신과 타인이 융합되어 있음으로 불안과 긴장에 충동적인 감정반사행동을 하여 자주성이 낮으므로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허만형, 2008). 남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할 경우 결혼생활에서 문제

가 생겼을 때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이 요구된다(진경복, 2005). 반면, 분화된 삶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불안을 처리하며 불안과 유혹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견고한 자기가 있어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허만형, 2008).

기존 선행연구 중에서 기혼남녀의 자아분화가 결혼 만족도, 부부의 적응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밝혀져 왔다(박성애, 하정, 2013; 김남진, 김영희, 2010; 남궁임, 2009; 한영숙, 2007; 이신숙, 2000). 반면에, 미혼 남녀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에 대한 연구가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대한 연구에 비해 부족하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미혼 대학생들의 자아수준이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할 대학생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결혼 후의 가족생활을 예상 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며 더 나아가 저출산 및 가족 복지적 문제의 원인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사회 구성원을 형성하며 사회화시켜 나간다. 한 개인은 가정 안에서 욕구와 의무를 조절하고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에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및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기에 결혼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 그리고 결혼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분화가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제주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 자아분화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제주도 대학생들의 자아분화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 2-1 제주도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 ‘정서조절’, ‘타인정서물입’, ‘정서적 거리두기’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가족 건강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한 정도,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의미한다.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가족의 사회·심리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정의한다.

유영주,이인수,김순기,최희진(2013)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는데, 하위요인은 5개로 ‘가족탄력성’, ‘상호 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이다.

2)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란 개인의 내적 측면에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고,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이소영, 2011). 서루비(2014)의 자기분화 대학생용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는데, 하위요인은 4개로 자기주장, 정서조절, 타인 정서몰입, 정서적 거리두기이다.

3) 결혼관

본 연구에서 가족 가치관의 일부분으로 결혼의 필요성, 동기, 배우자 선택조건, 결혼의 시기, 이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으로 정의한다. 정윤경,김경희,배진아,김찬아(1997) 결혼관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혼관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 변인인 가족 건강성, 자아분화와 결혼관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 건강성

1) 가족의 개념

가족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매개적 체계이며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다(이연미, 2009; 이지원, 2006). 가족은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아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1960년 이후 빠르게 진전된 산업화는 가정과 일터를 분리하고, 가족원의 공동체적 성격을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가정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나아가 가족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족 이기주의는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조희금, 2005). 현대에는 가족원의 구성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의 의미와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유영주의 3명, 2013).

표II-1.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의(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13)

구분	출처/학자명	내용
사전적 정의	American Heriage Dictionary	①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기본적 집단 ② 공동의 조상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 ③ 한 지붕 밑에 가루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④ 출계집단(lineage)
	Random Sample of 1,200 People;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

	Associated Press(1989)	
	U.S Bureau of the Census(1992)	가족이란 한 집에 거주하는 서로 관련된 두 명이상의 사람들
학자별 정의	G. P. Murdock(1949)	기능론적 입장으로, 경제적 협력, 공동의 거주, 생식의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으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양자)로 구성된 집단
	C. Levistrauss(1966)	경제적·종교적 권리와 의무, 법적 유대, 성적 권리와 규제 등 심리적·경제적·법적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관계론적·공동체적 입장)
	E. Burgess(1978)	상호작용하는 인격체들의 통일체(상호작용론적 입장)
	김두현(1949)	영속적인 통합에 의한 부부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이룩한 생활공동체
	최재석(1960)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
	이호재(1968)	사회조직의 원초적 집단으로서, 개인이 나서 자라며,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보금자리. 자아 중심적 어린이가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진 훈련장
	이광규(1974)	동거동재 집단이며, 가옥, 가격, 가품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문화집단
	유영주(1975)	인간의 인성을 형성시키는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인간형성의 기능)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 짓는 통합적 단위로서 진정한 발전이나 유지가 지속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사회전체의 분열과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이지원, 2006; 박수선, 2010). 2015년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족형성과 관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014년 혼인건수는 30만 6천건으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급감한 후 다시 약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3년간은 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이혼건수는 2014년 11만6천건으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최근 10년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혼의 영향으로 초혼연령(2014년 남32.4세, 여29.8세)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연령(2014년 남46.5세, 여42.8세)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1.24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0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약간의 반등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한국의 사회지표, 20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14년 한 해 동안의 상담통계 결과, 총 153,887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74,898건, 전국 30개 지부 78,989건). 본부의 2014년도 면접상담 16,084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40.5%(6,51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14.5%(2,333건), 파산 7.4%(1,191건), 유언·상속 6.3%(1,010건), 양육비 3.8%(610건)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 2014). 반면,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에 가족관계 만족도조사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반이상(55.2%)이 만족스러워 하며, 이 중 배우자(65.2%)나 부모와의 관계(63.5%)보다는 자녀와의 관계(73.0%)에서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조사보고서, 2014). 이는 1990년도 후반부터 가족위기 및 해체의 논쟁 속에서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상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족형태와 이념, 가치관의 변화에도 가족원들은 상호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정옥분, 정순화, 2014). 가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 인성, 특성 및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한다(최정혜, 2015).

가족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 1960~70년대에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장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건강가족, 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정옥분, 정순화, 2014).

가족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며, 애정적인 혈연집단으로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동거동재 집단이다.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인 동시에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가족 건강성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이라고 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질병의 이상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체 상태만을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지기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유영주(1995)는 건강한 가정의 의미를 개인의 건강함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정을 의미한다(조희금, 2005). 즉, 개인의 건강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지표의 역할을 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정과 사회의 기능을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족기본법 1장 제3조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건강가정기본법, 법률(제12529호), 2014년 3월 24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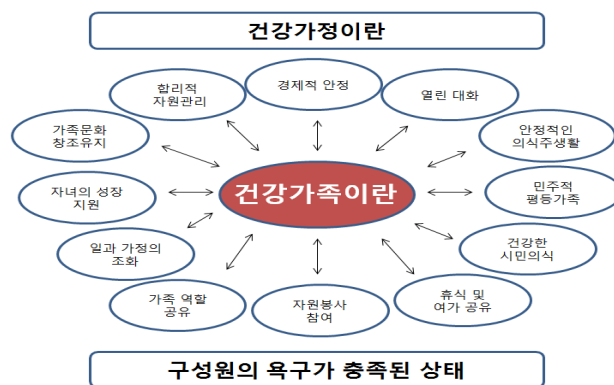


그림 II-1. 가족건강성의 구성요소 (조희금, 2005)

가족건강성의 구성요소로는 다음의 그림II-1로 요약할 수 있다.

메이스(Mace, 1985)는 건강한 가족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인간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의 복지와 정서적 건강을 높여준다. 학자마다 건강한 가족을 나타내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도 한다. 강한 가족(strong families), 정서적 건강 가족(emotionally healthy families), 행복한 가족(happy families), 성공적인 가족(successful families), 최적의 기능적 가족(optimally functioning families), 좋은 가족(good families), 회복력 있는 가족(resilient families), 조화로운 가족(harmonious families)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들을 종합하여 ‘가족건강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가족 건강성은 1962년 미국의 가족학자 Otto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건강한 가족의 강점은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며 가족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여 모든 가족이 잠재된 강점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였다(유영주 외 3명, 2013; 박혜림, 2012; 탁승현,김성희,구혜령, 2012; 이지영, 2006).

Stinnett and Saur(1977)은 가족원 모두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자녀관계에서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 시켜주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ADIYAJANTSAN OTGONBAYAR, 2015; 유영주 외3인, 2013).

Pratt(1976)는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이 서로 다양하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광역사회와 유대를 가지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고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문제해결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양여진, 2015; 박수선, 2010).

Fisher& Sprenkle(1978)은 가족원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지지받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가족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김태희, 2008). 유영주(1994)는 건강가족을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적 차원에서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며 원만하고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어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유영주 외3명, 2013).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 II-2로 정리하여 제시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마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가족 하위영역들을 따지지 않아도 건강한 가족은 구성원 간의 개별성을 인정하며, 상호작용과 갈등해결이 원활하며, 공통된 도덕적 가치관이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한 정도,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의미한다.

표 II-2.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소영, 2007)

연도	학자명	하위영역
1962년, 1976년	Otto	①지지②양육 ③부모의 훈육 ④가족원의 성장과 그에 대한 격려 ⑤문제해결기술 ⑥원활한 의사소통 ⑦가족 외부 활동참가 ⑧정신적인 안녕 (Well-being)
1978년	Epstein et al	①문제해결 ②가족기능과 책임분배 ③의사소통 ④애정 ⑤지지 ⑥융통성
1979년	Barnhill	①상호성 vs 고립 ②분화 vs 밀착 ③유연 vs 경직 ④안정 vs 해체 ⑤명확한 인식 vs 불명확한 혹은 왜곡된 인식 ⑥명확한 의사소통 vs 불명확한 혹은 왜곡된 의사소통 ⑦분명한 세대 간 경계 vs 혼재된 혹은 불명확한 경계 ⑧역할 상호성 vs 불명확하거나 갈등적인 역할
1980년	Fleck	①리더십 ②가족경계 ③애정 ④의사소통 ⑤과업이나 목표 수행성
1982년	Skyner	①자율성 ②의사소통 ③유연성 ④부모역할 ⑤신뢰 ⑥능동성 ⑦상호작용 ⑧격려와 지지
1982년	Walsh	①자율성 ②관계의식과 헌신 ③부부관계 ④부모역할 ⑤안정성 ⑥적응성(유연성) ⑦신념체계 ⑧문제 및 갈등 해결 ⑨경제적 심리·사회적인 자원 ⑩의사소통
1987년	Kinston et al	①의사소통 ②애정 상태 ③관계 ④경계 ⑤적응성과 안정성 ⑥가족능력
1985년, 2000년	DeFrain & Stinnett	①헌신 ②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 ③스트레스 혹은 위기 관리 능력 ④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 ⑤영적인 안녕 ⑥공정적인 의사소통 유형
1995년	어은주 유영주	①가족 간의 유대 ②가족간의 의사소통 ③가족원

		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④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1996년, 1998년	허봉렬	①사랑 ②적응력 ③관용 ④규율 ⑤자유로운 대화
1998년	1998년 지영숙 이영호	①공동체생활 ②부모자녀관계 ③부부관계 ④친척 형제자매 관계 ⑤가정환경분위기 ⑥경제활동
1999년, 2002년	최선희	①의사소통 ②유연성 ③자율성 ④신뢰와지지 ⑤애정과 사랑 ⑥문제해결 ⑦부모역할 ⑧신념체계
2000년	유영주	①관심과 책임 ②사랑, 존중, 지지 ③감사하는 마음 ④함께 하는 시간 ⑤개별성 존중 ⑥대화시간 ⑦인생목표, 도덕적 가치관 ⑧재정관리 ⑨사회와의 친밀한 유대 ⑩가족위기 시 긍정적 사고와협동
2000년	Australian Inventory of Family Strengths	①의사소통 ②헌신 ③역할분담 ④수용 ⑤지지 ⑥애정 ⑦연대감 ⑧탄력성
2001년	양순미	①의사소통과 문제대응 및 가족정체감 ②의사결정과 가족일체(유대)감 ③가족융통성과 사회적인 지지 ④가족의례 창출
2004년	유영주	①가족원에 대한 존중 ②유대의식 ③감사와 애정, 정서 ④긍정적인 의사소통 ⑤가치관 목표 공유 ⑥문제해결능력 ⑦역할충실 ⑧경제적 안정과 협력 ⑨신체적 건강 ⑩가족사회와의 유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가족건강성의 개념을 종합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하여 기능적으로 문제해결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면서 각 가족의 상태나 생활주기 등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잘 수행하여 행복하고 안전감을 느껴지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영주의 3명(2013)가 개발한 우리나라의 맞게 구성한 가족건강척도에 해당하는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를 가족 건강성의 구성요소로 제한시키고자 한다.

2. 자아분화

교육부 통계자료를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한 63만여 명의 졸업생 중 대학 진학률은 70.7%로 대학진학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교육부, 2013).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에 진학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성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이다(양선영, 2011). 무엇보다도 그들은 중·고등학교생활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즉, 대학생의 시기는 사회에 나가기 전 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단락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아분화의 개념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자아분화라고 할 수 있다. 자아분화에는 정신내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신내적 측면으로는 사고로부터 감정기능이 분리되어 균형을 잘 이루는 정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적 측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의미한다(최규련, 2010; 남궁임, 2009; 김정자, 2003). 즉, 한 개인이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관계에서도 독립적이고 자주성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owen은 타인으로부터의 자기의 분리와 감정과 정서를 지적 체계인 사고에 의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분별하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김수연, 2001). 감정체계가 감정 반사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지적 체계는 감정 충동에 의한 행동을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주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며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Guerin은 자아분화를 자기 가족의 정서적 혼돈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관계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김정현, 2013; Guerin, Fay, Burden, & Kautto, 1987).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감정에서 사고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쉽게 지배를 받으며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분노를 느끼며 배척한다. 또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소리치고 감정반사 행동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객관적이며 자제력이 있다(김유숙, 2000; 김혜숙, 200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측면에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고,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2) 자아분화 주요개념

Bowen의 가족치료는 정신분석적 원리 및 실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치료적 임상모델이다(김유숙, 2000). Bowen은 모든 이론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료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이론의 기초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치료는 인간행동의 정신의학적 직관이나 임상적 판단위주에서 벗어난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다른 가족치료적 접근보다 인간행동과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김유숙, 2000). 현대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은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의 복합체로서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양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상옥, 2009; 남순현,한성열, 2003). Bowen에게 있어서 가족원이란 일련의 상호 관련된 체계와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복합적 총체인데서 정서적 관계로 살아 있는 유기체와도 같다(김내원, 2014).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적인 8개의 기본개념인 자아분화, 삼각화, 핵가족 정서체계,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달과정, 출생순위, 정서적 단절, 사회적 퇴행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경옥, 2015; 김미정, 2010; 김상옥, 2009; 허만형, 2008; 엄영란, 2006; 이지현, 2006; 김수연, 2001; 김유숙, 2000; 최주희, 2000)

(1) 자아분화

한 개인의 정신내부는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체계란 확고한 신념, 생활신조 등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의미하며, 정서적 체계란 정서적 압박으로 형성되고 수정된 분화를 말한다. 즉, 자아분화란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의 기능이 분리된 정도를 말한다.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의 융합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융합되기 쉽다. 정서적 융합은 분리와 반대개념이다. 융합된 사람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현저히 부족하며,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을 중요시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는 개인의 자아가 가족자아집합체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사정하기 위한 이론적 척도다. 그러나 이 척도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없다. Bowen은 75정도의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보편적이고 높은 자아분화 수준의 상태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Kerr & Bowen, 1988).

낮은 자아분화수준(0~25)

-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감정에 주로 지배를 받는다.
- 자아개념이 아주 약하고 자신의 욕구감정이 희박하다.
-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 감정에 지나치게 반응한다.
- 주로 감정적 반사행동을 한다.
- 불안감의 수준이 높게 갖고 있다.
- 자신을 희생하여 강한 융합 관계를 갖는다.
-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이 어렵고 심한 역기능적인 행동을 한다.

낮은 자아분화수준(25~50)

- 감정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융합은 심하지 않지만 자아정체감이 약하다.
- 많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관심을 쏟는다.
- 타인의 반응에 쉽게 민감하고 유동적이며 좌절한다.
-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행동은 충동적으로 나타낸다.

- 타인과의 정서적인 강한 밀착관계를 형성한다.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역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불안과 두려움의 탈피로 약물, 알코올, 마약 등의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의 자아분화수준(50~75)

- 만성적 불안은 낮고 목표지향적 활동을 한다.
- 감정체계와 지적 체계가 서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 타인과 융합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도 쉽게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리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신념, 확신, 원칙에 의해 타인과 관계한다.

높은 자아분화수준(75~100)

- 감정체계와 지적 체계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충분한 분화가 이루어진다.
-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신념이 강하다.
- 다른 사람의 신념, 가치를 존중하며 수용할 수 있다.
- 타인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기능적이 아니라 현명하고 실제로 대처한다.
-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감으로 교류하며 자아정체감이 확실하다.
- 불안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행동이 자율적이며 책임을 진다.

(출처: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김혜숙, 2002)

(2) 삼각관계

삼각관계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이나 대상을 관계로 끌어들이는 정서적 역동을 의미한다. 두 사람관계에서 불안과 긴장이 올라가면 그 중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 혹은 사물을 끌어들이어서 삼각관계를 만들게 된다. 자아분화 수준과 경험하는 긴장 정도에 따라 삼각관계가 일어나게 된다. 낮은 자아분화 수준일수록 긴장이 심하면 현상은 두드러진

다. Bowen은 삼각관계를 가족관계 안에서 가장 불안정한 관계체계로 보았다. 삼각관계가 불안이나 긴장, 위기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문제를 더욱 무감각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감정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삼각관계에서 휘말리게 되는 자녀는 항상 부모의 불안과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발달과 자신의 욕구충족은 뒤로하고 부모의 근심걱정과 욕구에만 맞춰야 한다. 이런 자녀들은 자아분화수준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독립적이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와 또 정서적 강한 융합을 이루어야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핵가족 정서과정

핵가족 정서과정이란 가족들에게로 해소되지 못한 불안을 투사되는 것을 가리킨다. 가족 간의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원가족에서부터 형성되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생활을 통해 다세대에 걸쳐 반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원가족에서부터 자아분화가 잘 안 된 사람은 결혼을 할 때에 자기의 분화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과의 결합일수록 융합은 불안정하며, 때로는 융합이 반대로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증가시켜서 자녀에게 문제를 투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적응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4) 가족투사과정

부모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 갈등으로 싸움의 관계에서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의 문제나 갈등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직장 일로 바빠서 아내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과 멀어질수록 자기 자녀에게 모든 에너지와 애정을 쏟아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엄마의 과잉 간섭과 걱정, 기대로 인하여 자녀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며 채워지지 않은 자기 기대와 욕구의 불만족감을 자녀에게 돌린다. 이런 자녀는 심리적인 불안감에 독자적인 자아로 성장이 어려워지며 기능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Bowen에 의하면 투사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지만,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투사경향이 심하다.

(5) 다세대 전달과정

여러 세대를 통하여 가족의 정서적 과정이 전수되는 것을 가리킨다. 개인 뿐 아니라, 핵가족 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핵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서적 장애를 의미한다. 가족의 자아분화수준이 낮음으로 따르는 이상 행동들은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또다시 전달된다. 3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에 가면 자녀 중에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의 정서장애, 알코올 의존증, 강박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의 자아분화수준은 부모보다 낮은 자아분화가 나타나고 가족의 투사과정에서 벗어난 자녀는 부모보다 높은 자아분화를 나타낸다. 정신분열증 등의 역기능적인 문제는 개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체계에서 누적된 자아의 미분화의 결과라 볼 수 있겠다.

(6) 출생순위

토만(K. Toman)의 영향을 받아 Bowen은 자녀의 출생순위가 가족역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자녀의 출생순위, 형제자매 위치에 따라서 가족의 정서체계 내에서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의 기대수준에 부흥하는 장남이나 장녀는 부모와 강한 감정의 유대관계를 가지며 삼각관계에 빠질 위험이 높기에 자아분화 수준은 떨어질 경향이 많다. 반면, 부모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자녀는 삼각관계에 빠져들 위험이 적고 부모와의 감정적인 유대가 약한 편이어서 오히려 독립적이고 분화가 잘 되어 자아분화수준도 올라갔다. Bowen은 자녀들의 위치, 불안과 관련하여 분화수준과 연관시켰다. 자녀의 위치는 어떻게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해하며, 개인은 결혼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며, 또한 가족치료를 할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7) 정서적 단절

한 개인과 세대 간의 자신의 부모와의 잠재된 융합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부모와 융합된 자녀가 원가족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긴장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물리적·정서적 접촉을 회피하여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세대 간의 정서적 융합이 클수록 단절가능성이 높다. 부모와의 감정적인 융합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끼며 감정적 단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불안함으로 부부간의 감정적으로 강한 융합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융합이 심한 사람은 결혼을 해도 새로운 가족과 다시 융합하여 원가족의 문제를 재연시키기 때문이다.

감정단절과 관련하여 Hall(1991:91)은 특징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① 불안이 높을 경우, 감정교류의 차단이 생긴다.
- ② 가족에서 감정적 단절을 다루고 재시도한 경우 분화수준이 올라간다.
- ③ 부모의 감정적 단절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기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립할 경우에는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감정적 단절이 또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
- ④ 가족의 융합관계의 대처를 위해 감정적 단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충동을 할 수 있다.
- ⑤ 감정적 단절이 한 관계에서 강하면 그만큼 융합 또는 미분화의 정도도 강해진다.
- ⑥ 감정적 단절에 가족들은 어느 정도 모두 기여를 한 것이다.

(8) 사회적 정서과정

개인에게 거는 연대감을 갖게 하는 사회의 작용으로, 융합을 조장하며 자기 분화를 저해한다. 환경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과정은 가족 간의 정서적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사회생활에서 적응과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유지하면 개별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되며 가족 안에서도 분화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반면 사회생활 안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못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분화수준이 낮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사회도 불안이 증가하면 하위집단끼리

융합이 시작하여 공격성과 이기심, 회피, 폭력과 불신, 비행 및 범죄율이 높아져 사회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불안 수준이 높고 분화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성차별주의, 획일주의, 계층, 인종에 대한 편견 등이 문제가 나타난다. 반면 사회가 성숙해지고 집단 구성원의 분화수준이 높게 되면 공동의 복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서루비(2014)가 개발한 대학생 자아분화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총 4가지로 하위요인으로서 ‘자기주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신념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서조절’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이성으로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타인정서몰입’은 타인과의 친밀함을 원하며 타인의 정서적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개성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서적 거리두기’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너무 밀착되어 자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에게 정서적 거리를 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시키고자 한다.

3. 결혼관

1) 결혼관의 개념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로서 Erikson(1950)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중 6단계인 ‘친밀감 대 고립감’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공식적인 성인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는 시기인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친밀성은 동성과 이성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청년기에 긍정적인 정체감을 확립한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성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 친밀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에 확립을 이루어야 하는데, 입시 경쟁 안에서의 학업에 몰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대학생 시기는 청년기와 성인기 간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성인기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기에는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결혼은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넘어 일정의 제도를 통하여 가족과 사회가 유지된다는 복합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이선교, 2014; 정진희, 2011; 송정화, 2008). 정서적 관계와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 공적인 의식을 갖는 하나의 합의이다(양선영, 2011; 정외숙, 2001).

Olson(Olson, DeFrain, & Skgrand, 2008)은 결혼이란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과 다양한 과업 및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정서적 법적 책임관계라고 정의하였다(정옥분, 정순화, 2014). 결혼이 갖는 의미는 두 사람의 성인 남녀가 영속적인 결합을 전제로 살기로 약속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공인받은 관계이다(이세영, 홍달아기, 2014). 결혼은 두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른 만남이 관습 또는 법에 의해 승인되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은 정서적 관계이다. 둘째, 결혼은 성적인 일부일처의 관계이다. 셋째, 결혼은 법적 책임의 관

계이다. 넷째, 결혼은 자녀의 적출을 보장하는 관계이다. 다섯째, 결혼은 공적의식의 관계이다(이훈희, 2011; 김양희, 이형실, 1997). 즉, 결혼을 흔히 ‘제2의 인생의 시작’으로 묘사되며,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가 되는 만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장은지, 2015; 정운경외 3명, 1997).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 중 ‘당신은 왜 결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답으로 ‘사랑하니까’라고 하였다(이기숙, 2014).

그러나 결혼은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에 대하여 사회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영속시킨다고 Knox&Schacht(1999)는 5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우리의 결혼은 다를 것이다. 둘째,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우리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 넷째,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다섯째, 사랑일 깊을수록 갈등은 적을 것이다(이기숙, 2014). Linda Waite와 Maggie Gallagher(2001)는 200개 이상의 결혼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결혼한 부부가 독신자들보다 오래 산다.
-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독신자, 동거자, 미망인들보다 더 행복하다.
- 결혼 관계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점이 있다.
-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접성의 이점이 있다.
- 부부만의 배타적인 관계이며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남자의 경우 결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 경력을 쌓는 부분에도 긍정적 도움 받는다.
- 여자의 경우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가정 폭력에 덜 노출된다.

(김효신외 4인, 2012)

이를 통해, 결혼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기에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관은 개인적인 신념 또는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에 편재된 다양한 가치규범이 영향을 미친다(양선영, 2011; 고경애, 2006; 김상희, 1999). 또한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도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김건영, 2009; 이지원, 2006). 결혼을 향한 심리적 욕구가 다양해져가고,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성장해 온 가정의 인습 등,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가족 가치관이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준다(이세영,홍달아기, 2014; 김정석, 2006). 과거에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의무이며 결혼 규범이었고,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통과의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이소영, 2011; 문소정, 1995).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혼과 가족을 인간의 발달과정으로 당연시 여기던 기성세대와 달리 현재 젊은 세대들은 선택과 의사결정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이지원, 2006; 남순현,한성열, 2003). 젊은 세대들은 흔히 ‘결혼은 선택, 직업은 필수’라고 말한다.(김지유,조희선, 2014; 김예리, 2008; 김혜정, 2010) 권위적이고, 형식적이며 의례와 규율이 강조되던 전통적인 결혼생활과는 달리 현대의 결혼은 상호 이해, 감정과 서로간의 애정, 그리고 동료애의 관점에 표현된다. 전통적 결혼과 현대적 결혼의 차이점은 다음과 표 II-3과 같다.

표 II-3. 전통적 결혼과 현대적 결혼

전통적 결혼	현대적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과 역할의 강조 - 혼전 동거 불가 - 남편은 지배적: 아내는 복종적 - 한 소득원(남편의 수입) - 남편이 성관계 주도: 아내가 따름 - 아내가 자녀양육 - 교육은 남편에게만 중요 - 남편의 직업에 따라 가족의 거주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 동반자적인 감정 강조 - 혼전 동거 가능 - 어느 쪽도 지배적이지 않음 - 부부의 융통성 있는 역할부담 - 두 소득원(맞벌이) - 부부 중 어느 한 배우자에 의해 성관계 시작 - 부부가 함께 자녀양육 - 교육은 부부 모두에게 중요 - 주거는 어느 쪽의 직업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음

통계청에서 제시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자료를 따르며, 다음과 같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인 2008년 68%, 2010년 64.7%, 2012년에는 62.7%였으나, 2014년에는 56.8%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58.6%, 2010년 56.6%, 2012년 48.7%이었으나, 2014년에는 44.4%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 반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31.9%, 2010년 33.4%, 2012년 37.8%였으나, 2014년에는 39.9%로 증가하였다. 20대 연령층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4.1%)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전체 추세로 본다면 결혼에 대한 의무보다 선택의 사항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에 대해서 안된다는 비율(32.0%)보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47.2%)에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생활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의 사회지표, 2015).

2013년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미혼자 비율은 3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자 비율은 감안한다면 실제 순수 미혼자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3년 1월 14일, ; 정옥분, 정순화, 2014). 또한 독신의 증가는 가부장제 가족에 대한 반발, 개인주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및 이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김양희, 문영소, 박정윤, 2003; 박정윤, 김진희, 2002).

합계 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연령에 따른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2015년 합계 출산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1.24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0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출산연령은 첫째아이를 출산한 모 평균연령은 2010년 30.1세, 2015년에는 31.2세로 30세를 넘긴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한국의 사회지표,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종합하여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가치관의 일부분으로서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시기, 동기, 배우자 선택 조건, 이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으로 정의하였다.

4. 가족 건강성,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가족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변인으로는 성별, 학력, 연령, 소득, 종교, 가정생활수준, 형제순위,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별에 따른 결혼관을 살펴보면, 최현민(2009)은 여대생이 남대생보다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김혜선·이정음(2013)은 결혼준비상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김혜환(2008), 신호영,방은령(2007), 김보경(2005)에서도 성별에 따른 결혼관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결혼관을 살펴보면, 전영주(2005)는 대학생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교제관계에서의 질과 결혼기대에 차이가 있었고, 결혼기대는 이성교제의 교제동기, 횡수, 권유여부, 결혼고려가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고 나타났다. 김건영(2009)은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결혼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반면 가족형태에 따른 결혼관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성은 자녀의 결혼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강은숙(1981)은 서울과 지역간 결혼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간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제주도가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다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제주여자가 서울여자보다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지원(2006)은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은 집단이 행복도가 낮은 집단보다 결혼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박혜림(2012)은 대학생들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이 결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며 결혼 기대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최소영(2015)은 성인남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정현아,서병숙(1985)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여대생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낮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조은수

(2007)는 가족관계 만족에 따른 대학생의 전반적 결혼관을 살펴 보였을 때, 아버지와 의 관계서 만족감인 높은 집단,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결혼관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민(2009)은 대학생의 결혼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종교가 있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 상태가 중류층 이상일수록 결혼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아(2002)는 청년기 대학생들이 가정에서 화목하다고 느낄수록 결혼이미지가 높았고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할수록 결혼이미지는 낮게 나타났다. 이지은(1996)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의 관계

가족의 건강성은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이 잘되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명숙(2007)은 중년기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전연진(2002)은 원가족에서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김태희(2008)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가족분화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대인관계를 덜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nderson과 Sabatelli(1992)는 가족체계의 역동이 친구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불안과 우울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최혜련(2005)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에서 삼각화, 정서적 단절, 정신내적 분화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형태 중에서 한부모 가족에서 별거, 이혼 등의 가족문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부모와의 갈등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가족일수록 자아분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김수아(2003)는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평균이 모두 높은 적응집단에서 자아분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아분화의 하위 영역에서도 적응집단인 경우 자아분화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화(2001)는 대

학생의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규(1994)는 가족체계 유형에서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았으며,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만족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신숙,차용은(2000)은 성인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원가족에 대한 건강성이 높았으며 가족원 간에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정은(2006)은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사람은 자아분화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

Bowen(1976)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인 행동이 심해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기혼남녀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박성애,하정(2013)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비판적 아버지가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적 양육적 아버지가 자아상태와 사려 깊고 현실 감각이며 사려 깊은 성인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궁임(2009) 남편 자기분화는 남편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아내 자기분화도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허만형(2008)은 잘 이루어진 자기분화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인지기능도 높게 나왔으며,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은 적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혼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원 들 간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 및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영향이 있다(김병화, 2013; 김남진,김영희, 2010; 한영숙, 2007; 조은경,정혜정, 2002; 이신숙, 2000; 최주희, 2000; 전춘애,박성연, 1994; 제석봉,1989). 남순현,한성열(2003)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신혼부부들이 결혼 전 부모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선(200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연구결과, 여자대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결혼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정미(2006)는 자기분화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보영(200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융합이 낮을수록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낮다고 보고 하였다. 조호리(2009)는 성인 초기 미혼남녀의 자기분화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혼이미지가 나타났다. 장민정(2008)은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결과, 부모와의 갈등, 자아분화가 결혼관, 결혼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인 미혼 남녀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문은 부진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혼 남녀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통해 미혼 대학생들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였다.

4)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

이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성과 결혼관,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 세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아분화를 매개로 최근 연구된 기존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와의 갈등에서 또래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부모애착과 이성관계 불만족에서 관계, 기혼남녀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등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윤지현, 2016; 박성은, 2015; 오소영, 2015; 이창배, 2015; 함경애, 2015; 권소희, 이재림, 2014; 유선희, 2013; 전미량, 2013; 장윤정, 2012; 곽선주, 2011) 밝혔다. 이는 자아분화가 주요한 매개변수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의 관계 속에서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으로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5. 가설 및 연구모형

이상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제주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 자아분화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제주도 대학생들의 자아분화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제주도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하위요인인 ‘자기주장’, ‘정서조절’ ‘타인 정서몰입’ ‘정서적 거리두기’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을 통해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 결혼관의 관계를 탐색한 후, ‘가설 2’를 통해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즉, 가족건강성이 가족건강성의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결혼관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II-2, 그림 II-3, 그림 II-4과 같다.

매개효과검증모형

1단계 a 2단계 b 3단계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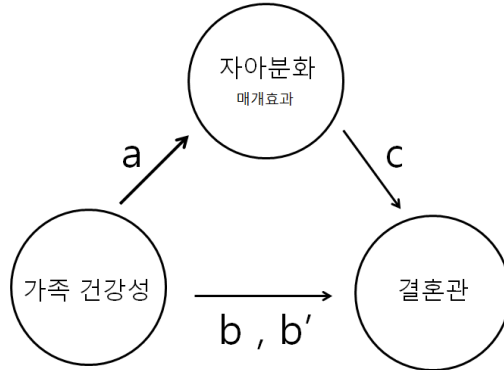


그림 II-2. 매개효과 검증 모형 : 자아분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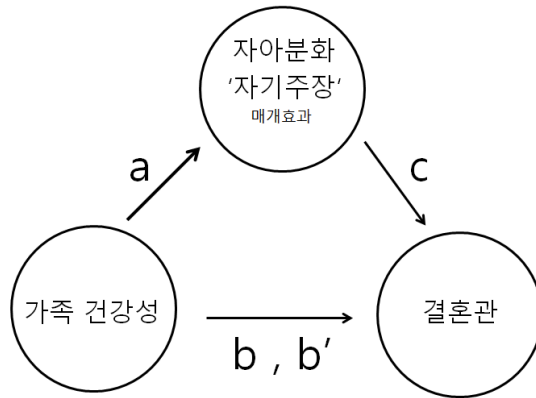


그림 II-3. 매개효과 검증 모형 :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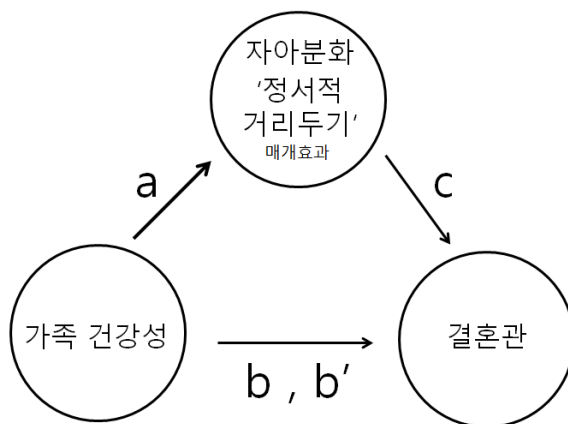


그림 II-4. 매개효과 검증 모형 :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4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 결혼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3일부터 17일에 10일간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335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III-1.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5)

구분		빈도	구성비율(%)
성별	남	144	43.0
	여	191	57.0
학년	1학년	91	27.2
	2학년	103	30.7
	3학년	72	21.5
	4학년	69	20.6
부모결혼상태	초혼	267	79.7
	재혼	19	5.7
	별거	8	2.4
	이혼	26	7.8
	사별	15	4.5

본 연구의 대상은 350명 중 불성실한 응답 15명 제외한 335명이며, 남학생 144명(43.0%), 여학생 191명(57.0%)이다. 학년별 인원을 살펴보면 1학년 91명(27.2%), 2학년 103명(30.7%), 3학년 72명(21.5%), 4학년 69명(20.6%)이고, 부모결혼 상태는 초혼 267명(79.7%), 재혼 19명(5.7%), 별거 8명(2.4%), 이혼 26명(7.8%), 사별 15명(4.5%)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4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생 19,094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 2014년 기준)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제주도 4개 대학교 모집단과 표본집단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제주도 4개 대학교 모집단과 표본집단

제주도 4개 대학교		A	B	C	D
모집단(N=19,094)		10,518명	5,386명	2,300명	890명
표본집단(N=350)		193명	99명	42명	16명
성별	남	90명(46.6%)	43명(43.4%)	20명(47.6%)	6명(56.3%)
	여	103명(53.4%)	56명(56.6%)	22명(52.4%)	10명(43.7%)
학년	1학년	50명(25.9%)	25명(25.3%)	10명(23.8%)	4명(25%)
	2학년	56명(29%)	30명(30.3%)	12명(28.6%)	5명(31.3%)
	3학년	47명(24.3%)	24명(24.2%)	10명(23.8%)	4명(25%)
	4학년	40명(20.8%)	20명(20.2%)	10명(23.8%)	3명(18.7%)

비례유층표집 방법으로 350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비례유층표집은 유층으로 나뉜 각 집단 내에서의 표본의 크기를 모집단의 구성비율과 동일하도록 표집하는 방법이다. 표집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2014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4개 대학으로 각 대학별 인원 비례하여 성별, 학년별로 고려한 학생 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가족 건강성 척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영주의 3명(2013) 총22문항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탄력성, 상호 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유영주의 3명(2013)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943로 나타났다.

표 III-3.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신뢰도 검증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가족 탄력성	9,11,12,14,15,16,20	7	.893
상호 존중과 수용	1, 2, 3, 4, 6	5	.885
질적 유대감	7, 8, 18, 19	4	.834
경제적 안정과 협력	5, 13, 21	3	.789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10, 17, 22	3	.656
전체		22	.943

2) 자아분화 척도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척도는 서루비(2014)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분화 척도'이다. 총 36문항인 척도는 '자기주장', '정서조절', '타인정서몰입', '정서적 거리두기'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응답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다고 해석한다. 서루비(2014)의 연구에서 전체문항 Cronbach's α 는 .859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전체문항 Cronbach's α 는 .861이었다.

표 III-4. 자아분화 하위요인 신뢰도 검증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주장	1,8,15*,16,19,22,27,28*, 30,32,33,35,36	13	.823
정서조절	2*,5*,9*,12*,16*,20*,23*, 24*,29*,31	10	.740
타인정서몰입	3*,6*,13*,17*,25*,34*	6	.742
정서적 거리두기	4*,7*,10*,14*,18*,21*,26*	7	.680
전체		36	.861

*역환산 문항

3) 결혼관

본 연구에서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척도는 정윤경의 3명(1997)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응답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결혼관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한다. 3,6,9,13,17,26,28번은 역문항이다. 연구에서의 전체문항은 Cronbach's α 는 .796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가족건강성, 결혼관, 자아분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하위영역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N=335)

	구분	M	SD
가족건강성(5점 척도)	가족탄력성	3.53	.73
	상호존중과 수용	3.79	.75
	질적 유대감	3.17	.86
	경제적 안정과 협력	3.61	.75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2.94	.80
	전체	3.46	.65
자아분화(5점 척도)	자기주장	3.17	.53
	정서조절	3.02	.53
	타인정서몰입	2.71	.63
	정서적 거리두기	3.09	.60
	전체	3.03	.40
결혼관(5점 척도)	전체	3.35	.38

변인 별 중간 값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3점(5점 척도), 자아분화 3점(5점 척도), 결혼관 3점(5점 척도)이다.

우선, 가족건강성의 전체 척도 수준은 평균 3.45로 중간 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가족건강성이 보통보다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상호존중과 수용이 평균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대학생들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정도로 가족 간의 상호존중과 수용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위요인들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협력(3.61), 가족탄력성(3.53), 질적유대감(3.17), 가족문화와 사회참여(2.9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분화 전체는 평균 3.03로 중간 값인 3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이 보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주장이 평균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자기주장을 사람들의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펼쳐 나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하위요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변인은 타인정서몰입(2.71)으로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타인정서몰입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서적 거리두기(3.09), 정서조절(3.02)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관 전체는 평균 3.34로 중간 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족건강성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은 보통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변인들의 평균으로 평가하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결혼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의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IV-2와 같다.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분석 결과 가족건강성은 결혼관과 $.373(p<.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존중과 수용($r=.383$), 가족탄력성($r=.356$), 경제적 안정과 협력($r=.291$), 질적유대감($r=.214$), 가족문화와 사회참여($r=.207$) 순으로 결혼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분화는 결혼관과 ($r=.229$)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주장($r=.333$), 정서적거리두기($r=.303$), 정서조절($r=.154$)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나타냈고($p<.01$), 타인정서몰입($r=-.170$)으로 결혼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아분화와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분화와 가족건강성은 $r= .275(p<.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가족탄력성($r=.284$), 사회존중과수용($r=.261$)의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보였다($p<.01$). 질적유대감($r=.163$), 경제적 안정과 협력($r=.185$), 가족문화와 사회참여($r=.133$)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 상관관계

	1	1-1	1-2	1-3	1-4	1-5	2	2-1	2-2	2-3	2-4	3
1. 가족건강성	1											
1-1.가족탄력성	.943**	1										
1-2.사회존중과수용	.867**	.750**	1									
1-3.질적유대감	.778**	.681**	.526**	1								
1-4.경제적 안정과협력	.709**	.563**	.613**	.485**	1							
1-5.가족문화와사회참여	.671**	.599**	.438**	.625**	.446**	1						
2.자아분화	.275**	.284**	.261**	.163**	.185**	.133*	1					
2-1.자기주장	.418**	.407**	.304**	.320**	.341**	.323**	.711**	1				
2-2.정서조절	.128*	.171**	.148**	.029	.029	-.007	.824**	.322**	1			
2-3.타인정서몰입	-.038	-.053	-.012	-.006	-.037	-.020	.680**	.314**	.433**	1		
2-4.정서적거리두기	.269**	.251**	.342**	.129*	.205**	.048	.568**	.207**	.461**	.329**	1	
3.결혼관	.373**	.356**	.383**	.214**	.291**	.207**	.229**	.333**	.154**	-.170	.303**	1

*p<.05, **p<.01, ***p<.001

3.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3단계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이 되어진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변수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②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③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완전매개효과를 갖게 된다. 반면,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는 작게 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 매개효과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 IV-3.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N=335)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단계	가족건강성 → 자아분화	.043	14.839	.200	.052	.207***	3.852
2단계	가족건강성 → 결혼관	.139	53.981	.365	.050	.373***	7.347
3단계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	.154	30.258	.340 .125	.050 .052	.348*** .124***	6.744 2.40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 .200 표준오차SE(a) = .052					
Z = 2.65390982***		비표준화 회귀계수B(b) = .198 표준오차SE(b) = .054					

*p<.05, **p<.01, ***p<.00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매개변수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과 매개변수인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1단계 분석모형에서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207, p < .001$). 가족건강성은 자아분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beta_1 = .373, p < .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아질수록 결혼관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분석에서 가족 건강성($\beta = .348, p < .001$)과 자아분화($\beta = .124, p < .001$)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자아분화를 투입한 결과 가족 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373에서 .348로 감소하였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자아분화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과 결혼관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자아분화가 갖는 부분 매개효과가 양측검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65390982, p < .001$). 즉, 가족건강성은 결혼관에 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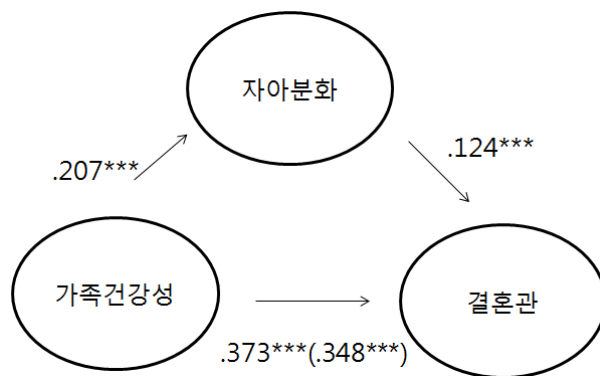


그림 IV-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표 IV-4.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의 매개효과(N=335)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단계	가족건강성 → 자기주장	.143	55.740	.358	.048	.379***	7.466
2단계	가족건강성 → 결혼관	.139	53.981	.365	.050	.373***	7.347
3단계	가족건강성 자기주장 →결혼관	.186	37.904	.279 .240	.052 .055	.285*** .233***	5.334 4.350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 .358 표준오차SE(a) = .048					
Z = 4.96000112***		비표준화 회귀계수B(b) = .352 표준오차SE(b) = .053					

*p<.05, **p<.01, ***p<.00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 건강성이 매개변수인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과 매개변수인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1단계 분석모형에서 가족건강성이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_1=.379, p<.001$). 가족건강성은 ‘자기주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beta_1 = .373, 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아질수록 결혼관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분석에서 가족 건강성($\beta=.285, p<.001$)과 ‘자기주장’($\beta=.233, p<.001$)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자아분화를 투입한 결과 가족 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373에서 .285로 감소하였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주장’이 통계적으로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과 결혼관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갖는 부분 매개효과가 양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Z=4.96000112, p<.001$).

즉, 가족건강성은 결혼관에 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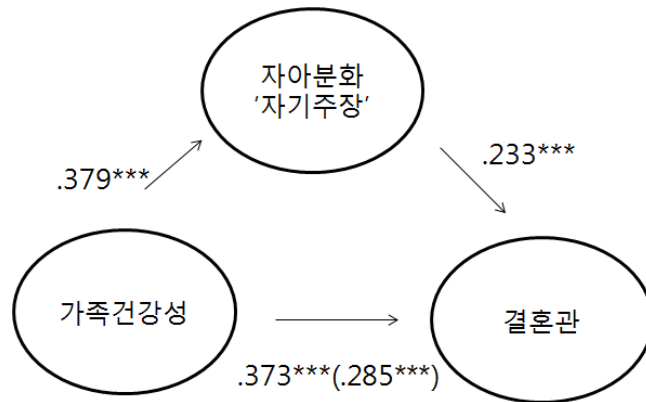


그림 IV-2.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표 IV-5.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N=335)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단계	가족건강성 → 정서조절	.010	3.210	.103	.058	.098	1.792
2단계	가족건강성 → 결혼관	.139	53.981	.365	.050	.373***	7.347
3단계	가족건강성 정서조절 →결혼관	.149	28.979	.355 .099	.050 .053	.364*** .096	7.156 1.887
		비표준화 회귀계수B(a) = .103 표준오차SE(a) = .058					
		비표준화 회귀계수B(b) = .099 표준오차SE(b) = .053					

*p<.05, **p<.01, ***p<.001

표 IV-6. 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타인정서몰입’의 매개효과 (N=335)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단계	가족건강성 → 타인정서몰입	.006	1.930	-.085	.061	.076	-1.389
2단계	가족건강성 → 결혼관	.139	53.981	.365	.050	.373***	7.347
3단계	가족건강성 타인정서몰입 →결혼관	.167	32.223	.352 -.182	.049 .055	.361*** -.166	7.184 -3.296
		비표준화 회귀계수B(a) = -.085 표준오차SE(a) = .061					
		비표준화 회귀계수B(b) = -.182 표준오차SE(b) = .055					

*p<.05, **p<.01, ***p<.00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조절’, ‘타인정서몰입’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하위요인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가족 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의 매개효과 (N=335)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단계	가족건강성	.055	19.356	.202	.046	.234***	4.400
	→ 정서적 거리두기						
2단계	가족건강성	.139	53.981	.365	.050	.373***	7.347
	→ 결혼관						
3단계	가족건강성	.180	36.398	.317	.058	.325***	6.358
	정서적거리두기 →결혼관			.234		.207***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 .202 표준오차SE(a) = .046					
Z = 3.39004650***		비표준화 회귀계수B(b) = .320 표준오차SE(b) = .060					

*p<.05, **p<.01, ***p<.00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매개변수인 ‘정서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과 매개변수인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1단계 분석모형에서 가족건강성이 ‘정서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34, p<.001$). 가족건강성은 ‘정서적 거리두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beta= .373, 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아질수록 결혼관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분석에서 가족 건강성($\beta=.325, p<.001$)과 ‘정서적 거리두기’($\beta=.207, p<.001$)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자아분화를 투입한 결과 가족 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373에서 .325로 감소하였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정서적 거리두기’가 통계적으로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과 결혼관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거리두기’가 갖는 부분 매개효과가 양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3.39004650$, $p<.001$). 즉, 가족건강성은 결혼관에 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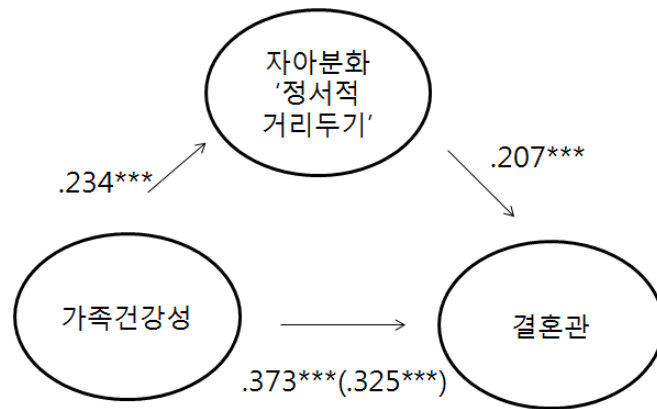


그림 IV-3.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 ‘정서적 거리두기’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 그리고 결혼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분화가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제주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제주도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유층표집으로 제주도내 4개 대학교에 335명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8.0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 및 선행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은 중간 값보다 약간 높았고,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관도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료 수집 기간이 2015년 10월 제주도 대학생들은 자신이 대체로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 제주도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선, Pearson 상관 분석 결과에서 가족건강성, 자아분화와 결혼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결혼관을 가질 것이라는 선행 연구(최소영, 2015; 박혜림, 2012; 최현민, 2009; 조은수, 2007; 이지원, 2006; 송정아, 2002; 정현아, 서병숙, 1985)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가족 건강성 하위요인 중에서는 ‘상호 존중과 수용’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술 통계치에서도 중간값보다 가장 높은 3.79 값을 보였다. 해당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우리 가족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소속감이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한다.’ ‘우리 가족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는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가족 간의 상호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대체로 긍정적이며 그 결과 결혼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자아분화와 결혼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들의 자아분화수준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했음을 알 수 있다(김병화, 2013; 박성애, 하정, 2013; 김남진, 김영희, 2010; 남궁임, 2009; 허만형, 2008; 한영숙, 2007; 조은경, 정혜정, 2002; 이신숙, 2000; 최주희, 2000; 전춘애, 박성연, 1994; 제석봉, 1989). 이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을 정적 방향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분화 하위요인에서는 ‘자기주장’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학생 자아분화 척도 하위요인 요인분석을 통해 ‘자기주장’ 하위요인의 설명변량이 다른 하위요인들보다 높다고 나온 것과 일치한다(서루비, 2014). 대학생 시기는 타인의 대한 책임과 의무도 없고, 성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결정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시기로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의 한 요소이다(곽금주, 2010). 정서적 거리두기, 정서조절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타인정서몰입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고한 자기신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결혼관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몰입이 잘 되는 경우에는 결혼관

은 부적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결혼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상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태희, 2008; 김명숙, 2007; 권정란, 2005; 최혜련, 2004; 김수아, 2003; 전연진, 2002; 박유화, 2001; 신영규, 1994; Anderson&Savatelli, 1992). 이로써,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결혼관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 제주도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가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자아분화가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 긍정적 결혼관을 높이는데 간접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분화를 매개로 최근 연구된 기존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와의 갈등에서 또래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부모애착과 이성관계 불만족에서 관계, 기혼남녀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등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윤지현, 2016; 박성은, 2015; 오소영, 2015; 이창배, 2015; 함경애, 2015; 권소희, 이재림, 2014; 유선희, 2013; 전미량, 2013; 장윤정, 2012; 광선주, 2011) 밝혔다. 이는 자아분화가 주요한 매개변수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제주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에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을 자아분화 전체, 그리고 자아분화의 하위 변인 4가지를 각각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자아분화 영역 중 어느 하위요인에서 매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실제적인 현장에서 구체적인 개입을 이루고자 함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대한 실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후 자아분화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위요인 별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하위요인 중 ‘자기주장’, ‘정서적 거리두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정서조절’, ‘타인정서몰입’에서는 매개효과나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주장’과 ‘정서적 거리두기’는 현대 대학생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위요소이다. 대학생 시기는 대학이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부모, 교사로부터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기로서 타인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다. 동시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를 넘어 인간관계, 집, 꿈조차도 포기하여 ‘N포세대’라 불린만큼 시대의 흐름의 민감하며 취업과

경쟁에 몰두되어 성인되기 위한 또 다른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 나온 결과에서 자아분화 전체 중 하위요인인 ‘자기주장’, ‘정서적 거리두기’가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좀 더 깊이 매개요인으로 확인하여 대학생에게 좀 더 결혼관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추론 할 수 있다.

2.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주도 대학생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는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기주장’, ‘정서적 거리두기’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가족의 건강성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였고,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결혼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매개요인 이라는 것을 밝혔다. 자아분화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교육 및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 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아분화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에 대한 바른 가치를 위한 ‘가족과 결혼’관련 수업을 제주도 대학교내에 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길 제안한다.

대학의 현장 속에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들을 많으나, 건강한 개인 및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자아분화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 교양수업 과목에 추가함으로써 제주도내에 대학현장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추후 다른 지역에서의 자아분화 연구와 관련하여 자아분화 증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가족건강성이 증진이 되고,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결혼관을 가지며 저출산 및 가족 복지적 문제를 개선

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실제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는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을 접목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자아분화는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정적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작용하여 정적 방향으로 결혼관에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분화의 수준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개인 내적통제가 높은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지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자아분화 이론의 학문 발전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비례유층표집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아분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 중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 4개의 대학생 인원별로 비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성별, 학년을 비례하여 구성 비율을 맞추자 노력하였다. 이는 표본집단에 대표성을 띄움으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자 함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비례유층표집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측면에서는, 제주도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아분화 수준을 파악 하여 결혼만족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미하였다. 미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제주도 연구는 더욱이나 없었다. 진경복(2005)이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 및 영향요인에 관하여 연구는 있었으나 최근 연구로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자는 제주도가 전국단위에 포함되지 않고 연구된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되어 연구를 할 필요성을 가졌다. 따라서 지역성 특성이 고려된 연구는 제주도 대학생들에게 맞는 자아분

화 수준을 높이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대학교 현장에 개입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상에서의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 연구를 추가로 시행하여 그 결과와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축적된 연구를 통해서 질 높은 자아분화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상을 대학생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확립해야 할 청소년시기인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좀 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기 전에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데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 그리고 결혼관이라는 세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전부 매개효과 나타난 것이 아닌 두 하위요인에서만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자아분화 하위요인의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결혼관 관계에서 매개로 자아분화를 연구하였으나, 그 외 다른 변인으로도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결혼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혔듯이 많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변인 중에 자아분화가 가장 큰 매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결혼관에 대한 충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매개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시점 및 척도와 관련한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실제 상황 보다 더 좋게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현재의 상황을 과장하여 나쁘게 응답 할 수 있으나, 연구자는 이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자기 보고식 응답이 갖는 제한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자기 보

고식 응답이 갖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한 응답자의 문장 이해력과 관련하여 설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조사에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결혼관, 자아분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상기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서 관찰자 보고식 질문지를 추가하거나,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을 제언 한다.

참 고 문 헌

-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건강가정기본법(2014) 법률(제12529호), 2014년 3월 24일 시행
- 고경애(2006).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3). “우리나라의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한 63만여 명의 졸업생 중 대학 진학률”.
- 곽금주(2010). 흔들리는 20대: 청년기 생애 설계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곽선주(20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고교생의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자아분화의 매개 역할. 충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권소희,이재림(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32(5),41-61. 한국가정관리학회.
- 권인숙(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가족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권효임,배운정,조민언(1997).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 가족관리연구,16,113-136.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회.
- 김건영(2009).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욱(2015).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진,김영희(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15(1),197-225. 한국가족관계학회.
- 김내원(2014).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상관관계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2007). **중년기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10).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집단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병화(2013). **부부의 자기분화가 가족분화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경(2005).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상욱(2009).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1999). **공주대학생의 성과 사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24. 공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 김성경(2002).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일립논총**,8,9-34.한국성서대학교.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10(2),215-237.한국청소년학회.
-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한국노동경제논집**,38(4),57-81
- 김수아(200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 및 의사결정의 관계**.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결혼. 가족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이형실(1997). **결혼과 가족**. 서울: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양희,문영소,박정윤(2003).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논**

- 집,17,53-72.중앙대학교 생활문화산업연구소.
- 김예리(2008).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숙(2000).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29(1),57-70.** 한국인구학회.
- 김정은(200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2013). **부모의 자기분화와 아동기 자녀의 자기분화와의 관계: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지유,조희선(2014). 대학생의 이성 관련태도 및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19(2),123-143.** 한국가족 관계학회.
- 김태희(2008). **기혼남녀의 관계적 자기: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가족분화 수준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현,홍영선(2013).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 **한국학교 보건교육학회지,14(1),13-24.**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
- 김혜선,이정읍 (2013).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41(2),211-224.** 대학 가정학회.
- 김혜숙(200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학지사
- 김혜정(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환(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 중등학생과 미혼남녀(20-29세) 실태조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효신,김인옥,안혜숙,임선영,김하정(2012). **결혼학.** 구상.
- 나보영(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자기분화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학위 논문.
- 남궁임(2009). **자기분화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자기분화**

- 수준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한성열(2003). 신희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22(3),505-523. 임상한국심리학회
- 남순현(2007).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13(4),1-27.한국심리학회.
- 남정미(2006).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수준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16(4),163-178.한국가족복지학회.
- 문민경(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정(1995). 다양한 가족 유형의 등장과 여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여성연구논집**, 6, 25-99.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박미령(2013). **결혼한다는 것**. 북에너지.
- 박성애,하정(2013). 기혼남녀의 자아상태와 사랑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상담학 연구**,14(2),931-949.한국상담학회.
- 박성은(2015).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수선(2010).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14(1),37-55.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2007). **대학생의 결혼이미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낭만적 애착의 관계분석**.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윤,김진희(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 학회**, 40(10), 17-31. 대한가정학회
- 박혜림(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이 결혼 이미지와 결혼 기대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루비(2014). **대학생용 자기분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연구논문집**,55(1),225-259.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 송재희(199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2002). **부모의 부부간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천안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화(2008). **결혼적령기 남녀의 자아이미지와 배우자이미지 선택요소의 상관관계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이미지경영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사회조사보고서(2014). **“2014년 한 해 동안의 상담통계”**.
- 신미숙(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소정(2014). 부모의 정서지능과 결혼만족도,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한국케어 매니지먼트연구**, 13,133-153.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 신수진, 황은희, 김건희(2010). **대학생의 건강한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을 위한 교육모형 개발**. **여성건강**,11(1),71-84.대한여성건강학회.
- 신영규(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효영, 방은령(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494-495. 한국심리학회.
- 심지연(2013). **대학생의 진로 의식 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의 남, 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4(2),167-131. 대한가정학회.
- 양선영(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결혼관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여진(2015). **중년기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

- 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 엄영란(2006). **기독교 청년들의 결혼 전 자아분화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 韓南大學 校學際神學大學院 : 基督教相談 專攻 석사학위논문.
- 오소영(2015). **기혼 남녀의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 원아름(201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희(201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자아분화수준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4). 韓國都市家族의 家族生活週期 模型 設定에 關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111-129. 한국가정관리학회.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한국가정관리학회.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9(2), 119-151, 한국가족관계학회.
- 유영주·김순옥·김경신(2013). **가족관계학**. (주)교문사
- 유영주·이인수·김순기·최희진(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KFSS-Ⅱ)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31(4),113-129.한국가정관리학회.
- 윤지현(2016). **대학생의 아버지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자아분화와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2014). **결혼의 기술**. 신정.
- 이선교(2014). **대학생 결혼관의 구조모형 개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희(2008).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14(2),124-130. 여성건강간호학회.
- 이세영,홍달아기(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19(2),3-28.한국가족관계학회.

- 이소영(2007). 가족 건강성이 결혼불안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11). 남녀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차용은(2000).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38(4),대한가정학회.
- 이신숙(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 관계학회지**,5(1),23-43.한국가족관계학회.
- 이연미(2009).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또래동조성 및 휴대폰 중독.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06).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1996). 청년기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상호작용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이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07). 부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갈등대처행동 연구.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배·전혜성(2015). 대학생의 가족분화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상담연구**,16(6),465-483, 한국상담학회.
- 이훈희(2011). 형제자매 유무 및 관계가 결혼,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임성선(2009). 결혼의 심리학 이혼의 심리학. 아름다운 사람들.
- 장민정(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윤정(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이성관계 불만족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은지(2015). 성인 초기의 결혼관과 연애관 분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대한가정학회.
- 제석봉(1989). 自我分化和 逆機能的 行動과의 關係 : Bowen의 家族體制理論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教育學科 박사학위.
- 전미량(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2005).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분화와 이성교제 관계의 질, 결혼기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주거학과 가족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대한가정학회.
- 정미라, 장영희(2007). 대학생들의 결혼 및 직업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과 관련 연구. **교육연구**, 41, 1-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정옥분(2013).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2014).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 정외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성별, 결혼 여부별, 지역별 비교 분석. **연구논집**, 32, 49-9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진희(2011). 미혼남녀의 경제적 자립도와 심리적 독립심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아, 서병숙(1985). 女大生の 自我實現性에 따른 結婚觀에 關한 研究 - 서울 市를 中心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985.7, 93-106. 한국가정

- 관리학회.
- 정혜정(2008).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17(6),1135-1149.한국생활과학학회.
- 제주도민일보(2015.5.18). “**제주도 이혼율 1위, 그 뒤에는 심각한 가정폭력**”
- 제주의소리(2016.3.3). “**지난해 제주 성폭력 437건, 가정폭력 800건 급증**”
- 조윤정(2007).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정혜정(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1),1-16. 한국가정관리학회.
- 조은수(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2013.1.14). “**2013년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미혼자 비율**”
- 조호리(2009).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부모간의 갈등과 자기분화가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금(2005). **건강가정론**. 신정
- 진경복(2005).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2010). **가족상담 및 치료**. 공동체
- 최소영(2015).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및 성역할인식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2015).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 연구. **중등교육연구**, 27,1-20.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최주희(2000).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적응연구 :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민(2008). **대학생의 결혼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보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련(2004). **부모-자녀 갈등 정도와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가족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탁승현,김성희,구혜령(2012).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통계청(2014). “1990~2014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 통계청(2014). “결혼에 대한 견해”
- 한국의 사회지표(2015).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
- 한국의 사회지표(2015). “가족형성과 관계의 변화”
- 한국의 사회지표(2015). “합계 출산을 및 첫 자녀 출산연령”
- 한금윤(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인간연구**,28,7-2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한미선(1987). **한국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적응과의 관계**.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教育學科 教育心理專攻 석사학위 논문.
-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16(2),259-272. 한국생활과학회.
- 함경애(2015). 원가족 건강성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22(3),549-564. 한국재활심리학회.
- 허만형(2008). **개인의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owen(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pp.42-90). New York: Garner Press.
- Guerin,P.J.,Fay,L.,Burden, S. L., & Kautto, J. B.(1987).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 A four stage approach*. NY :Basic Books.
- Hall, C.M. (1991). *The Bowen Family Therapy and Its Uses*. Northval and London. Jason Arnson Inc.
- Kerr, E.,&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Y. W.W. Norton.
- Linda J. Waite and Maggie Gallagher(2001). *The Case for Marriage:Why Married People Are Happier, Healthier, and Better off Financially*. Broadway
- Olson, D. H.,DeFrain, J.,&Skogrand, L. (2008).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diversity,and strenghs(6th ed.)*. New York:McGraw-Hill Higher Education.
- Stinnett, N., & Saur, K. H.(1977).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Abstract>

The effe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outlook on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by
self-differentiation

Lim, Su-Bi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trength, self-differentiation, and outlook on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and verify the effe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outlook on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For this, this study set up subjects for inquiry as follows;

First subject for inquiry, do family strength and self-differentiation, outlook on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subject for inquiry, do the sub factors of family strength and self-differentiation, outlook on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To solve above subjects for inquiry, 350 students of 4 university schools of Jeju-do Self-Governing Province were proportionate stratified in sampling, so data was collected during 14 days from October 3, 2016 to October 17, 2016.

The measuring tools of the study were 'korea family strengths scale' of Yoo, Youngju, Lee, Insoo, Kim, Sunki, Choi, Heejin(2013) to measure family strength, 'self Differentiation scale for university student' of Seo, Ruby(2013) to measure self differentiation, and the 'outlook on marriage scale' of Jeong, Yoonkyung, Kim Kyunghee, Bea, Jina, Kim, Chana(1997) to measure outlook on marriage.

The study utilized 'SPSS for Windows 18.0' for analysis, and used such statistical methods a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family strength, self-differentiation and outlook on marriage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Famil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outlook on marriage. In addition, self-differentiation indicated positive correlation with outlook on marriage. And family strength and self-Differentiation illustrated positive correlation.

Second, in that family strength had direct influence in the positive direction on outlook on marriage, self-differentiation had indirect influence to enhance outlook on marriage by mediating partly. In addition, 'self-assertiveness', 'emotional regulation' of self-differentiation, had partial medi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above study results, family strength of university students had indirect effect to enhance outlook on marriage as self-differentiation mediated partly in the route to have direct influence on outlook on marriage

in the positive direction. Thu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results will be used as base date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outlook on marriage through improving self-differenti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부 록 목 차

부록1. 가족건강성 설문지.....	73
부록2. 자아분화 설문지	74
부록3. 결혼관 설문지	75

--	--	--	--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도내에 대학생의 결혼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미래의 결혼관의 변화를 예측하고 저출산 및 혼인율 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통계법 13조2항에 의거하여** 무기명으로 조사되며, 응답 사항은 본 연구의 순수한 학문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름의 정답이 없으며 자세히 읽어보시고서 평소의 생각과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내용에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 응답해주셔야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연구자 석사과정 임 수 빈

I. 다음 문항을 읽고 현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빠짐없이 V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한 수입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취미생활 등)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자기 입장을 표현한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은 사회활동(봉사, 모임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가족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 문항을 읽고 현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빠짐없이 V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화가 나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일부러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일 때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7	자꾸 부모님과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안보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흥분하면 말이 지나치게 거칠어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관계가 친밀해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 때문에 정작 내 할 일을 놓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 기분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자신 있게 나의 소신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 후 후회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화가 나면 행동이 절제가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때때로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 주려다보니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단체 활동을 할 때 나의 의견을 잘 제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우유부단하여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이나 투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주관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아 주로 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주눅 들지 않고 늘 당당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을 읽고 현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빠짐없이 V**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바람직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에 있어서 적령기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은 고행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결혼은 외로움을 덜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결혼은 좋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결혼은 구속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결혼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결혼은 끊임없는 문제발생의 근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결혼은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온다	①	②	③	④	⑤
15	결혼은 신분상승의 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결혼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7	결혼은 후회를 낳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결혼은 한번만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결혼은 부모님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결혼과 사랑을 별개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결혼은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2	결혼은 성생활이 있어야 유지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결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결혼은 가장 친한 친구를 얻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결혼이 불행한 경우 이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결혼은 도박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결혼은 종족보존의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결혼은 남성 우월주의를 심화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29	결혼시 연령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결혼은 동성간에 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IV. 개인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빠짐없이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세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이상
4	부모님 결혼상태	① 초혼 ② 재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